

# 자체 계근소 운영으로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진다

취재/권동원 기자

**육**계사육자들은 계근에 대한 문제를 자주 제기하고 있다. 애써 키운 닭을 눈에 보이지 않게 도둑 맞고 있다는 것이다.

계근소로 통하는 길목에 널려 있는 벽돌, 보도블럭 등이 육계와 맞바꾸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육계인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빈 닭차를 계근할 때 잔뜩 실려진 벽돌들이 양계장에 도착하기 전에 버려짐으로써 이 무게 만큼의 육계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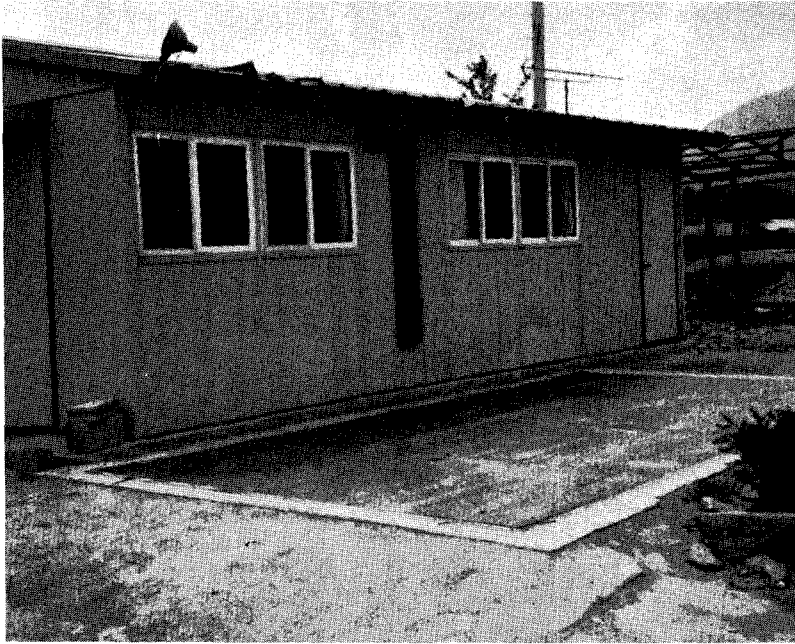
그래도 이 정도는 덜 지능적이다. 아예 계근소측과 짜고서 중량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의에 의한 피해는 물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계근소를 직접 설립, 운영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받고 있는 가평육계분회를 찾았다.

그동안 가평에서는 계근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과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 지리적 여건으로 40km가 떨어진 미금시에 있는 계근소나 동두천

천호도계장 계근소를 이용했다.

민해근 분회장은 “계근소까지 운송중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40km나 운송하다 보니 운송비는 물론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체중감량 등에서 한차당 3만5천원 정도가 손실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4~5명씩 필요한 농장 손계근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근소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평육계분회는 작년 5월 계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평육계분회  
사무실과  
계근대 전경

설립을 추진할 당시 영세한 육계 사육자들이 모인 단체였기에 축적된 자금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계근소의 필요성과 회원의 단결력은 대단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축협에서 용자를 받고, 지역내 몇몇 계우회에서 자금을 빌렸다. 처음 1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사를 하다 보니 2천2백만원이 투입되었다.

계근대는 9백만원을 들여 중고 품을 구입하였다. 분회 사무실과 자재창고 등의 건축비에 5백만원, 보일러, 우물설치비, 인건비 등이 추가되었다. 인건비는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불요불급한 부분만 외부인력을 이용했고 대부분은 회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

였다. 총설치비용에는 회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었다.

가평군내 육계농장중 80%는 설악면에 집중되어 있다. 계근소는 대부분 닭차들이 지나가는 설악면 길목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내 육계농가는 110호 정도이다. 이중 가평육계분회에는 50명이 가입되어 있다. 많은 육계농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계근소는 비회원농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계근비용은 생체 kg당 5원씩을 받고 있다. 일반 계근소가 차당 5천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비하면 비싼 편이다. 4t 한차를 계근하면 2만원으로 계근비용은 월등

히 비싸지만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모든 육계농가가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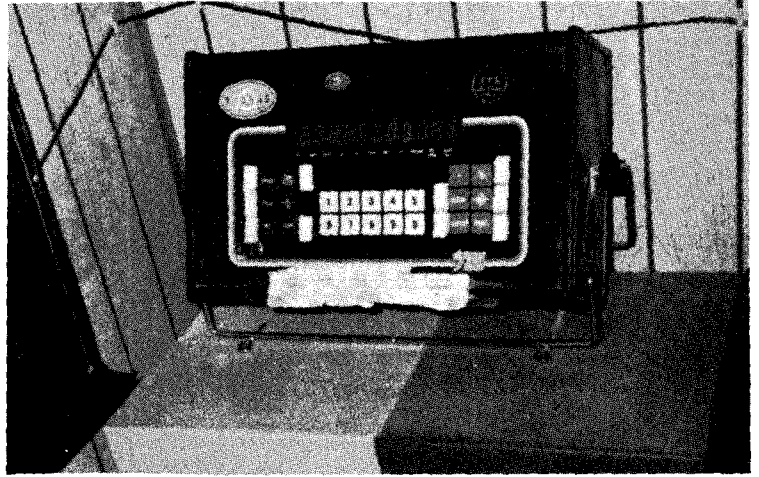
계근비용이 비싼 이유는 외부에서 빌린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빚을 갚고 2백여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을 복달 출하가 끝나는 때쯤이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다. 한편 모든 빚을 청산한 후에는 계근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근소는 한달에 20여만kg의 육계를 계근하고 있다. 회원들이 출하한 육계 이외에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반 계근품목이 전혀 없어 아쉬움을 갖고 있다.

실제 한달 20만kg의 계근수입으로 1년만에 설치비용 대부분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 분회에서는 회원들이 기자재나 약품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있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빚을 갚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립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육계 이외의 계근수입이 없어 계근소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고립된 여건이기에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민회장은 교통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육계인들의 자체적 계근소 운영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계근소 운영 이후 회원들의 분회에 대한 참여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계근소 운영으로 협회가 회원에게 이득을 주고 있으며, 회원들도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계근소가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가평육계분회 계근소는 회원들의 이득을 직접 보호해 주고 있으며, 협회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굳건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 양태

# 알을 낳는 우리

## 들에게 메치리신은

# 보약입니다. 알이 굵어집니다.

---

대란을 특란으로

메치리신

**주식 과학축산**  
 서울사무소 : 용산구 한강로 2가 316-1  
 대표전화 : 795-2361 (~5)